

보도시점 2026. 8. 9(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6. 8. 7.(금)

문닫고 냉방하고, 미사용 플러그는 뽑고... 에너지 낭비 줄이는 “슬기로운 전기생활”

- 휴가철 이후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가동과 함께 전력수요 본격적 증가 예상
- 주요 상점가 개문냉방 계도, 불필요한 조명 및 전력 차단 등 홍보 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연일 지속되는 극한 폭염과 함께 산업체 조업률 회복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절약 집중 홍보 기간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명동, 홍대 등 전국 주요 상점가 26곳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유도하는 거리 운동(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전력 사용을 높이는 개문냉방*을 자제하고, 안 쓰는 기기와 조명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냉장고 문 닫기,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개문냉방 시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약 1.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아울러 ‘절약의 전략’이라는 에너지절약 국민참여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슬기로운 전기생활 전략을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제23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기후행동 독려 및 에너지절약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밤 9시부터 광화문, 시청, 국회의사당 등 주요 명소를 포함한 전국 동시 10분 소등 행사가 진행되고, 전국 10개 이상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지역별 에너지절약 운동을 연계 개최해 전국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에너지의 날) 2003년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8.22)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날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집중 홍보기간은 폭염 상황을 고려해 냉방 제한보다는 합리적 에너지소비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둘 예정”이라며,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행동 실천과 연계한 에너지절약 대국민 메시지를 집중 전파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에너지의 날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용운 (044-203-3984)
		담당자	사무관	원혜림 (044-203-3980)



제 2 3 회
에 너 지 의 날
2 0 2 6
8 . 2 1 ~ 2 2

별을
꺼
다

에너지로 실천하는 기후행동

에너지시미연대 www.energyday.org


 1994년 12월 설립

 한국에너지공인

 한국전력주식회사

 KPS 전력기술연구소

 GGS그룹

 ERT 한국에너지환경연구원

 KOMIPO 한국수력공사

 WPP 한국수력발전공사

 한국수력발전공사

 한국수력발전공사

 한국수력발전공사

 KBS

 MBC

 SBS

 OYTN



에너지의날
홈페이지
바로가기